



Cambodia

캄보디아사무소

어두운 시장 상황에도 한국산 딸기 여전히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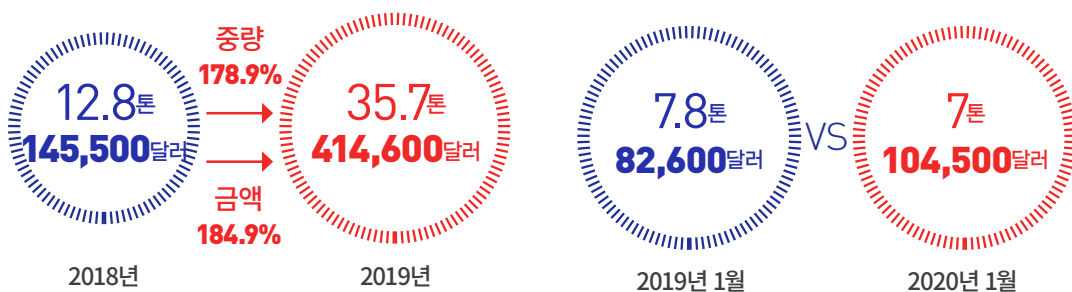
희소가치 높아 고가유지하며 판매 상승

2019년말 기준 한국산 딸기의 캄보디아 수출 금액은 약 41만 4천 6백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약 184.9% 증가했다. 또한 2020년 1월 현재 수출액 기준 26.6%대의 상승률을 보이며 지속적인 수출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는 고온의 날씨 영향으로 파인애플, 망고 등 다양한 열대과일들이 생산 및 판매되나 딸기는 현지생산되지 않는 품목이기 때문에 현지

에서 희소가치가 높다.

한국산 딸기는 주로 11월에서 4월말 사이에 항공운송 형태로 수입되는데, 일부 물량은 태국을 경유해서 조달되기도 한다. 한국산 딸기는 kg당 26US\$로 판매될 정도로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주로 Aeon Mall, Makro, Chip Mong Noro Mall, Lucky Mart 등 대형유통채널을 통해 입점·판매되고 있다.

| 캄보디아의 딸기 수입현황 |



| Aeon Mall |



| Chip Mong Noro Mall |

| Makro |



| Lucky Mart |

시장은 위축 예상되나 딸기 판매 호조는 여전해

캄보디아는 2020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진자가 1명 뿐이며 중국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인들의 캄보디아 방문 및 소비가 줄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예상되고 있다.

그 외에도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캄보디아가 인권 및 노동법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BA(Everything But Arms) 특혜관세 일부를 철회하면서 오는 8월 12일부터 EU에 수출하는 의류, 신발에 관세가 붙게 된다. 이로 인해 캄보디아 봉제 산업 등 전반적으로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국발, EU발 영향으로 하반기 경제 상황이 다소 부정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대형유통채널에서 한국 딸기의 인기는 여전하다.

현지 바이어에 따르면 사과, 배, 멜론 등은 저렴하고 품질도 괜찮은 중국산 경쟁상품이 있어 한국산의 시장 개척이 쉽지 않다. 그러나 딸기는 한국산이 가격과 품질 면에서 독보적이

므로 대체할 수 있는 경쟁상품이 없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캄보디아는 온라인 쇼핑몰이 크게 발달하지 않아 현지인들은 주로 재래시장 및 유통매장에 직접 쇼핑을 하러 나온다. 현지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덜해 최근에도 일부 대형유통매장에선 주말 동안 딸기 시식 행사를 개최하여 소비자의 구매욕을 높이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Key Point

시식행사와 SNS홍보로 인지도 먼저 확보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한국산 딸기의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는 중이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한 번도 딸기를 접하지 않았던 소비자가 선풍 구매하기는 어려운 품목이다. 이에 따라 한국산 딸기에 대한 지속적인 시식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여야 하며, SNS 홍보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마케팅을 병행한다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